



## 상식적 기독교인<sup>1)</sup>

양혜원

상식: 영어로는 'common sense'로서, '현명한', '지각있는'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상식'이라는 말은, '상식이 풍부하다'고 할 때처럼 아는 것이 많다거나 박식하다는 지식의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각있는 태도와 행동, 현명하며, 소위 '센스있다'는 의미의 상식입니다.

### 상식이 필요한 시대

어디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저서 가축들이 떠내려 가고, 집들이 잠기고 난리가 났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물이 차오자, 지붕 위로 피신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잠시 후, 저 쪽에서 뗏목을 엮어서 타고 탈출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어서 이리로 와서 같이 탈출하자고 손짓을 했다. 그러나 그는 ‘괜찮습니다. 저는 저를 구해달라고 저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냥 보냈다. 물은 계속 불어나 그가 피신한 지붕도 더 이상 안전한 자리가 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계속 기다렸다.

그러자 저쪽에서 구조대원들이 구명 보트를 타고 와서는 그에게 얼른 이리로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거든요.’ 라고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제 물은 불고 불어서 그는 지붕 위로 솟아있는 굴뚝 위에 올라서서 간신히 몸이 잠기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제는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오더니 그에게 줄사다리를 내려주면서 소리쳤다. ‘자 빨리 이 사다리를 잡고 타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구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도 마다하고 보냈다. 이제 물은 그의 목까지 차왔고, 그는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그 후 하늘나라에서 그는 하나님께 여쭙보았다.

‘하나님, 왜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도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애야, 내가 세번이나 너를 구하러 보냈는데 너는 다 거절했더구나.’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어느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브리에 전화하신 한 분이, 여기에 한 번 찾아오시라고 했더니, ‘글쎄요...기도 좀 해 보고요.’라고 대답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 단체에서 해외로 전도 집회를 나갔는데, 짐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자 한 쪽 구석에 모여 열심히 대적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니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의 예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상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살인, 강간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가치와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참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 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들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몫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앞에서 든 예화처럼 영적 신비주의의 경향으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육체와 관련된 것은 악하거나 혹은 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에 반발한 소위 참자유를 얻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수준으로 예배를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행위입니다. (갈 5:13)

그리스도인은 지각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잠 1:7)’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앎, 지혜의 기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짓 이론들을 거부하고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들의 삶을 쌓아갑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만큼 현명한 일이 어디있겠으며, 지혜와 지각에 이보다 더 확실한 기반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각있는 사람들이며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참 상식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 상식을 오해하는 이유

#### 1) 영성에 대한 오해 - 바른 영성이란?

먼저는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제람 바즈는 ‘진정한 영성’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욕구를 가진 육체적 존재로 지으셨으며, 그는 우리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지성과, 솟구치는 상상력, 그리고 그의 다양한 선물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피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만을 섬기는데 실패한 것, 그 분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 그의 형상에 보다 부합하지 못했던 것, 즉 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잘 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중략)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덜 인간적이 되거나, 우리 자신답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완전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목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상태, 각자의 개성과, 욕구와 즐거움과 유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10:31) 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하겠습니까.

## 2) 구원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상식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상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현명하며 지각있는 행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고 있으며, 소위 보편타당한 것이라거나 사회의 권위, 세태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실재(reality-나의 주관적인 해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체. 예를 들어 뉴욕이라는 도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건 간에 뉴욕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참 진리라는 실재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항상 존재하는 실체다.)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순종할 수도 있지만 진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진리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거나 진리를 거부하는 하나의 반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나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거짓말, 혹은 완전히 틀린 것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듯한 것에 끌립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진실 혹은 반진실은, 진실보다는 거짓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는 완전히 허풍을 치지 않습니다. 좋은 면만을 이야기하거나, 있는 것을 부풀립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롬 1:21-23).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바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상의 변화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인간은 여지껏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선택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형성된 문화가 다 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가는 입장권을 확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죽어서 천국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후에 부활된 몸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이제 그가 입어야 할 새 옷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지만,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새 옷, 새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요17:3).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마7:21).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면 참 상식을 지닌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며, 지각있고 현명한 삶입니까? 에디스 웨퍼 여사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삶(Common Sense Christian Living)'이라는 책을 통해 그것을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를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책을 통해 얻은 통찰력으로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상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임과 동시에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악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처음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죽음이라는 악은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이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강도, 테러, 마약, 강간과 같은 일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절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악이 원래 세상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사탄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재난은 영원한 수수께끼며, 절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이 세상의 악을 정확히 직면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의 절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의 절망과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얻은 구원의 안전함에만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냐. 너도 예수 믿어봐라'는 식의 가벼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가벼운 반응을 하거나, 처음에 언급한 예화에서처럼 신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야 하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상식입니다.

2) 삶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우리의 삶이 한 목적을 향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지금 이 세상은 한가지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과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는 설명해 주고 있으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이 엉겨붙을 내고,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고통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왜 지금 이 세상이 악한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쓸어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이 완전한 구속을 받을 날이 아직 남아 있음을, 그리고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성경은 이 세상이 지금도 망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이유와 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어져 온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섬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간절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진리를 알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타락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상한 세계 속의 모든 세대들에게 소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무의미한 파편들로 이루어진 조각 천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어져 꿰매어진 하나의 조각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이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만 보아도 무엇하나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이 없으며, 일년 전의 우리만 보아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이 제대로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을 이해하는 존재이며,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조각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도 온전한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그러한 연속성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한 푼대를 바라보며 꾸준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질 것 같은 관계를 지키고, 회복시키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우리의 구속을 향해, 삶의 불규칙한 많은 것들이 때로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3) 심은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은 심은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갈 6:8-9) 내가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년 후에는 그냥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좋게 라는 말은 자주 씁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좋게 좋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댓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내 행위에 대한 댓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동에서 서가면 것처럼 나의 죄를 옮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창12:1-3)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이 우리의 행, 불행을 판가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신 11:26-28, 27:11-28:68) 우리가 육체를 위한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갈 6:8-9)

은혜는 내가 지금 썩은 씨앗을 심는데,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심는 좋은 씨앗이 헛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돌보고 가꾸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와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농부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때에 맞는 비와 햇볕을 주셔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처음부터 부실한 씨앗을 심었다면 그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참 인간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도외시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좋게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도둑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 지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나의 삶을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때는 내가 몇 년 전에 무엇을 심었던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생스러운 것을 택하더라도 그것이 수 년후에는 매우 풍성한 열매로 보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지 않은 것이 수 년후에 열매로 나타날리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후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지금 옥수수를 심지 않으면서 나중에 옥수수를 찌서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선택은 항상 시간의 댓가를 요구합니다. 열매는 그것을 얻기 위해 씨를 심고, 가꾸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하는 삶이 없이는 친밀함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에 맞는 씨앗을 선택하여 시간과 노력의 댓가를 치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4) 악을 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악을 악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악을 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며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안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불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을 겪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며, 이 타락한 세상에는 사망과 질병과,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지, 고의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낫지 않는 지체들에게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병이 나을텐데.' 라는 말을 한다. 혹은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요즘 신앙 생활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통에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매맞고, 갇히고, 도망다니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 예수 믿게 할라고 사고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꼭 우리의 다리 하나라도 부러뜨려서 당신께로 인도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결과 때문에 고난 자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고난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무고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욥이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또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결의 결과를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욥의 승리는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모자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켰으며,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에 초점을 맞춰서, 꼭 그런 식의 재물을 얻어내거나, 병이 낫거나 해야 승리한 것이고, 그냥 죽거나, 끝내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믿음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때, 욥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잘 산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초점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치사한 실물 거래로 맺어진 관계인 양,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욥 자신은 전혀 이유도 모르는 채 고난을 받았지만, 성경을 통해 그 비밀의 커튼이 걷히고, 그 뒤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바뀌어야

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주시건,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견딜만한 은혜를 주시건, 우리는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에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과시함으로써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악속을 받기도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았고,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히11:33~39)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11:16).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5)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핵심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상식적 삶은 기도가 그 핵심을 차지하는 삶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교회 내에도 통용이 되는 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게 하려는 양 열심히, 그야말로 불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해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할 말을 퍼붓고는 '아시겠지요? 그럼 저는 하나님만 믿고 물러갑니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원에 있는 기도실에는 '기도는 듣는 것이다'라는 글이 붙어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듣는 것은 어쩌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은 정확한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나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한 요청이나 대화만으로는 서로를 깊이 알 수 없고, 상대방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장시간을 앉아서 같이 이야기 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식, 철야 혹은 금욕을 하는 이유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데 보냈던 시간, 잠을 자는데 보냈던 시간들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실제로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들은 종종 금식기도나 철야기도가 하나님께 일종의 뇌물을 드리는 행위가 되어 버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안됩니다. 내가 특별히 떼어 놓은 그 시간은 진정한 기도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달라질 것을 기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물의 2층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이 술집이 불타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술집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헐박한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대표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겠어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실존하는 대상과의 실제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따를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에 변화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아주 신중하게 하나의 임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골 4:2-4)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뜻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발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응답이, 변화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이건, 혹은 상황의 변화라는 직접적인 변화이건 말입니다. 종종 기도의 응답은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는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고, 후에는 순교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누군가가 사실은 나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그 응답으로 내가 완전한 충족감과 행복감 가운데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루 하루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영구적인 인생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순간순간의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생활은 특별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 임의로 밀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다음 가야할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 50:10-11) 또한 순조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순조롭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탄은 늘 이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삶은 이러한 실제적인 기도, 즉 하나님과의 교제로 언제든지 그 분이 우리 삶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 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어느 특정한 영역, 즉 소위 영적 생활이라고 규정 짓는 그 영역에만 속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와 말씀, 교회 봉사를 영적 생활의 영역에 놓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 영역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성격입니다. 만약 위의 세 가지만이 영적 생활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때만 진정한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한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만큼 한 사람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생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면, 영적인 삶이란 신분 자체가 변화된 생활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나의 일상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전과는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6)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와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와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느 1:3)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느 1:4)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을 아닥사스다왕께 올려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왕의 허락을 얻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는 말과 함께 사람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보수할 성이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어서 빨리 천당이나 가자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미약했던 때는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영향력있게 산다고 합니다. 어떤 수필가는, 자신은 종말론을 믿기 보다는 차라리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좀더 나은 곳이 되고자 애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태도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사회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세대는 그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역사이며, 바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지, 우리 전(前)세대가 살았거나, 우리 후(後)세대가 살게 될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것이며, 내 앞에 당한 나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항상, 모든 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보수하는 일은,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과의 싸움도 포함합니다. 그 세력은 외부에도 있지만, 동시에 내부에서도 자꾸만 낙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보수하면서 동시에 보초를 세워 성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낙담하는 무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균형, 성을 보수하는 것과 싸우는 것(building and battling)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위와 같은 전시체제의 긴장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시체제의 긴장과 휴식사이에도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므로 우리는 필요한 휴식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세우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간간히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 배려하십니다. 이미 얻은 안식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얻지 못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될 날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적 삶. 그것은 유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전 일생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창조하고, 즐거워하도록 명령을 받은 전 인격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타락의 영향으로 인한 슬픔의 자리도 실재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나 말하도록 하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몫의 역사와 지역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사는 전쟁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됨의 삶이면서 동시에 각자의 재능과 감성과 견해가 무한히 다양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와 이해력을 구해야 하는 동시에, 진리에 반대하는 것과 거짓들에 대항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도움과 위로는 받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로의 성령만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적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완전한 이해와 도움에 기대는 ‘집단 생활’이나 ‘집단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누가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해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나만의 문제와 홀로 서야할 때가 있습니다. (딤후 4:14-18) 그러나 언젠가는 나팔이 울리고 보수와 전쟁의 균형을 맞추는 삶이 이제 끝났음을 알릴 것입니다. 그 나팔소리는 이제 어려움을 참는 시간은 지나갔으며, 영원을 향한 완전함-혹은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의 발견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립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 시옵소서.”

---

1) 이 글은 [그리스도인의 상식] (예영커뮤니케이션)이란 제목의 라브리소책자 중 하나입니다.